

부(富)는 좋은 것인가요, 나쁜 것인가요?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 대주교



부(富)는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 보자면, 그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부를 어떻게 쌓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즉, 부를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하고 고된 노동을 통해 정직하게 부를 쌓는가, 아니면 사기나 횡령 등의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쌓는가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획득한 부와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지,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남들을 위해서도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부유한 사람이 재물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네 가지 주의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책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재물이 적든 많든,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는 청지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간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용하는 '좋은 청지기'가 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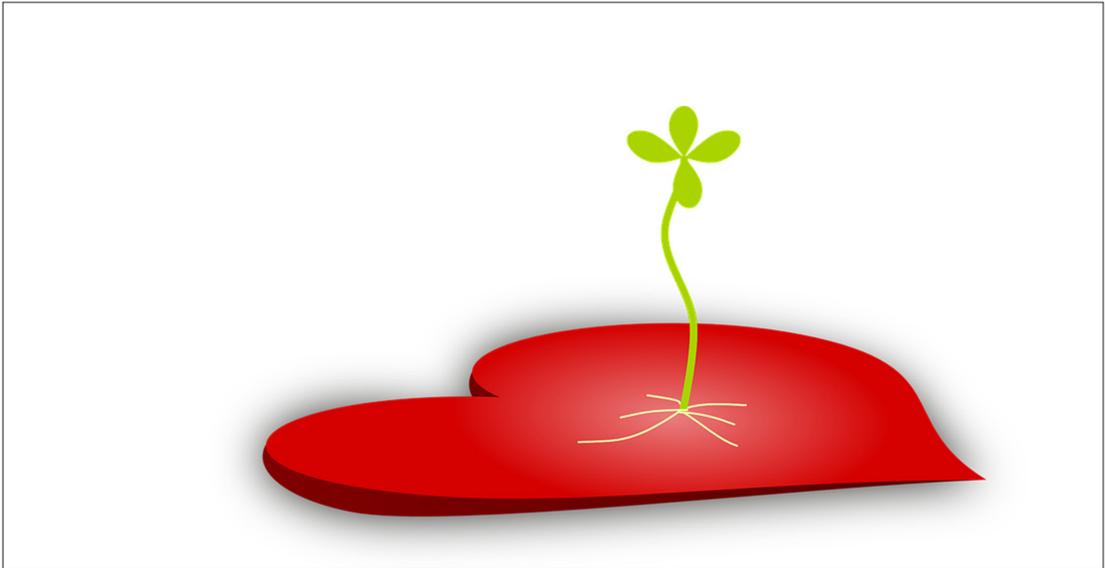
2. 자유. 우리가 가진 것에 예속되지 말아야 합니다. 물건이나 재물은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지, 그것이 우리를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재물은 올바르게 쓰면 아주 유용한 수단이지만, 사람이 물질만능주의에 휩싸여 재물의 노예가 되면, 그것은 잔인한 폭군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3. 정의. 재물을 쌓고 사용하는 방법이 정의로 워야 합니다.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부는 정의로운 방법으로는 거의 획득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 부가 정의롭게 사용되는 것은 어떤 체제나 시스템에 달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로움에 달린 문제입니다. 아무리 공정한 체제가 마련된다고 해도, 사람들이 여전히 불의를 행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착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사랑. 사랑은 경제적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원천이 되고, 계급 간 투쟁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사랑보다 더 신성한 것은 없다는 점입니다. 사랑의 신비는, 은총에 의해, 우리를 사람에서 신으로 변화시킵니다.

천사의 가게

아타나시아 봉사자



어느 날 한 천사가 땅 위에 가게를 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가게가 열렸다는 소문이 퍼지자마자 모두들 무엇인가를 사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천사님, 무엇을 파시나요?”라고 첫 손님이 물었습니다.

“하느님의 온갖 물건들을 팔지요.”라고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그것들은 비싼가요?”라고 손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요... 하느님의 물건들은 모두 공짜입니다!”라고 천사가 다시 대답했습니다.

손님은 놀라서 무어라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은 ‘사랑’이라는 병과 ‘행복’과 ‘기쁨’이라는 단지, 그리고 다른 많은 놀라운 물건들로 가득한 선반을 바라보면서 놀라고 신기해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한순간, 모든 것을 갖고픈 마음이 들어 천사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용서> 한 조각하고 <사랑>과 <행복> 한 꾸러미, 그리고 <인내> 한 단지, 약간의 <유머>, 그리고 <용기>와 <희망> 한 상자를 주세요.”

친절한 천사는 손님이 주문한 모든 것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에 천사는 아주 작은 상자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심장처럼 지극히 작은 것이었습니다. 손님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제가 주문한 모든 것을 이렇게 작은 상자 안에 다 넣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러자 천사는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우리 가게 안에서는 이미 다 준비된 물건이 아니라, 다만 작은 씨앗만을 판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라게 하는 것은 당신의 몫이지요.”라고.



주간 예배 안내

- * 11월 21일(월)
성모 입당 축일
- * 11월 25일(금)
성 카테리나 대순교자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바랍니다)

■ 양구 성당 철야예배 안내

성 안드레아 성인의 축일을 맞아, 12월 2~3일(금~토) 일정으로 양구 성당에서 철야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숙소 예약과 식사 준비를 위해 서울 성당 사무실로 25일(금)까지 꼭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식

■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인천 성당 방문

지난 주일(13일),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와 요한 보제가 인천 성 바울로 성당을 방문하였습니다. 조과와 성찬예배를 드리고 신자들과 영적 대화를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 '넥타리오스 성인을 말하다' 발표회

지난 11일(금) 저녁, 온라인(zoom)을 통해 넥타리오스 성인에 관한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예기나의 에프렘 대주교님이 특별히 참여하셔서, 어려서부터 개인적으로 듣고 경험해온 넥타리오스 성인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날 모임에는 100여 명의 신자가 함께했습니다.

■ 서울 성당 세례성사

지난 12일(토)에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로만 신부, 안토니오스 임종훈 신부, 요한 보제의 집전으로 유아 두 명의 세례성사가 거행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소피아 권시온 (디오니시오스 권새벽-카테리나 박현진의 女)
소티리아 김미야 (임마누엘 김하늘-카테리나의 女)

막달라 여자 마리아 치유 :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현장

표지 사진 설명



예수께서는 여러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는데 열 두 제자도 같이 따라 다녔다. 또 악령이나 질병으로 시달리다가 나온 여자들도 따라 다녔는데 그들 중에는 일곱 마귀가 나간 막달라 여자라고 하는 마리아, 헤로데의 신하 쿠파의 아내인 요안나, 그리고 수산나라는 여자를 비롯하여 다른 여자들도 여럿 있었다. 그들은 자기네 재산을 바쳐 예수의 일행을 돕고 있었다.(루가 8,1~3)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래아 호수의 서쪽, 가파르나움과 티베리아 사이에 자리한 막달라(사진)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성녀는 젊고 아름다웠지만, 죄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한다. 그러나 주님께서 일곱 마귀를 쫓아내 주신 다음부터 새 삶을 살기 시작했으며,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었다. 성녀는 구세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뿐만이 아니라 굴욕과 모욕을 당하시던 순간에도 늘 그 곁에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실 때도 도망간 제자들과 달리 성모님, 성 사도 요한과 함께 끝까지 남아 있었다.

지금의 막달라는 한산한 어촌이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중요한 곳이었다. 히브리어로 '탑, 망루'란 의미의 막달라는 역사가 요세푸스(AD 37~100)의 기록에 의하면 한때 4만여 명의 주민과 230척의 배가 있었다. 그러나 70년경 로마에 함락되었을 때, 6000여 명이 죽었고 젊은이 6000여 명은 포로로 끌려갔으며 3만여 명은 노예로 경매되었다. 당시 막달라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살아남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전해진다. 근래 들어 고고학자들에 의해 지표 바로 아래에 묻혔던 1세기의 유적이 발굴되었다.